

외국인 3조 ‘바이 코리아’…李 증시공약에 삼천피 눈앞

〈코스피 지수 30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일 만에
코스피 지수 2850선 넘어서

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증시부양 공약 기대감 드러나
증권사 하반기 전망 일제 상향

새 정부의 공약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엿새 만인 9일 주가지수가 285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55% 오른 2855.77에 거래를 마쳤다.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새로운 정책과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지수상승은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후 3조원 가량 순매수했다.

◆지배구조개선, 코스피 상승 촉매제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에는 이 대통령의 한국 증시 부양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스로를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고 말하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고질적 원인으로



Chat GPT가 생성한 ‘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 이미지.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물적분할 시 일반 주주 대상 신주 물량 배정 제도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 차액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처단에 대한 공약도 내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PBR이 0.1~0.2배 수준인 상장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저성과 상장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BR 0.2배 미만의 상장사는 45곳으로, 퇴출 시 지수가 100포인트 가깝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태현 D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구조적 밸류에이션 할인은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제한적인 배당성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며 “지배구조 개선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 지수 편입과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 개편 등으로 주식시장에 더 많은 돈이 흘러들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코스피 5000, 답은 경제·기업 살아야’

코스피는 이날 증가 대비 5.05%만 더 올라다 3000선에 닿는다. 증권가도 이재명정부 첫해인 하반기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지수 전망치 범위를 2350~3000포인트로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2400~2900포인트, 키움증권은 2380~2880포인트, 신한투자증권 2400~2850포인트, iM증권 2500~2780포인트 등이다. NH투자증권은 2350~3000포인트까지 예상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코스피 지수 상단 3000포인트를 유지했으며, 한화투자증

권은 2500~3000선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간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며 외교 리스크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는 한 당분간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 C리서치부장은 “비미국(Non-US) 증시에서 코스피, 특히 신흥 아시아 등은 상대적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무역협상 타결이 가시화될 수 있고, 내수 부양을 위한 주경 및 정책 동력 강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 강화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답의 5000까지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이다. 주가가 여기서 점프하듯 똬박질하려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과 나라 경제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달라지는 일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투자자 예탁금 60조 돌파… 3년만에 최대

이재명 정부 출범에 투심 회복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 반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동안 위축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60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 2일에는 60조188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6월 2일(61조6321억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다만, 5일에는 58조원대로 감소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4월 14일 16조3045억원으로 연저점을 기록한 이후 이달 5일 기준 18조5530억원으로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신용융자 잔액은 통상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증가하며, 반대로 시장 불확실

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이 빚을 상환하며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개인 투자심리의 개선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해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제도 개편이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 리레이팅(재평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

은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예상된다”며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경기 부양 기대와 지배구조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수급 유입 전망이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실제 정책 실행이 확인되는 시점에 코스피와 산업 전반의 상승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내수, 인프라, 첨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내 변수에 더 민감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토끼와 거북이 처럼… 과정값 충실해야”

‘성공, 꿈꾸지 말고 훑쳐라’ 발간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북토크

한양증권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인아책방에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의 북토크가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최인아 최인아책방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북토크는 임 대표의 저서 ‘성공, 꿈꾸지 말고 훑쳐라’를 기반으로 청중과 소통했다. 이날 임 대표는 “일에서 성취하지 못하면 인생에서도 큰 변화는 어렵다”며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처럼 결과값보다 과정값에 충실하다 보면

지치지 않고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중학생 시절부터 CEO를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최고경영자(CEO)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기쁨은 고작 3개월이었다”며 이후 과정에 대해 ‘영혼의 산’이라 표현하며, 성취 이후에도 삶을 다시 바라보고 완성해가는 내면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정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그는 “열정은 겹다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며,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고 답했다. 호기심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고, 목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인아책방에서 개최된 북토크에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청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한양증권

표가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부연이다. 실제로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내가 정말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됐으며, 3주 만에 300페이지가 넘는 원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회장)이 투교협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자기주도 자산관리 능력, 필수 역량”

투자자교육협의회 창립 20주년
서유석 의장 “공교육 금융교과 신설
적재적소 금융투자교육 제공 최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공평한 금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걸맞은 금융투자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여의도 소재 FKI타워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유석 투교협 의장(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개인의 금융 역량도 중요해졌다”며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바꾸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자산을 설계하는 자기주도의 자산관리 능력은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됐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올해부터는 공교육사상 최초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금융교과목이 신설된다”며 “디지털 금융 확산과 고령화사회 진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평한 금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

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선택과목이 고등학교 과정에 신설된다. 지난 2021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과목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공교육 내 첫 도입 사례다. 더불어 그는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해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계층과 세대가 공평하게 금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맞는 금융투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전 세대가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금투자, 연금 가입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 순간에 유의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2030세대 직장인들의 재무설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이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가상자산과 같은 고위험 투자자산의 등장과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등 금융의 디지털화로 투자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투교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자 교육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